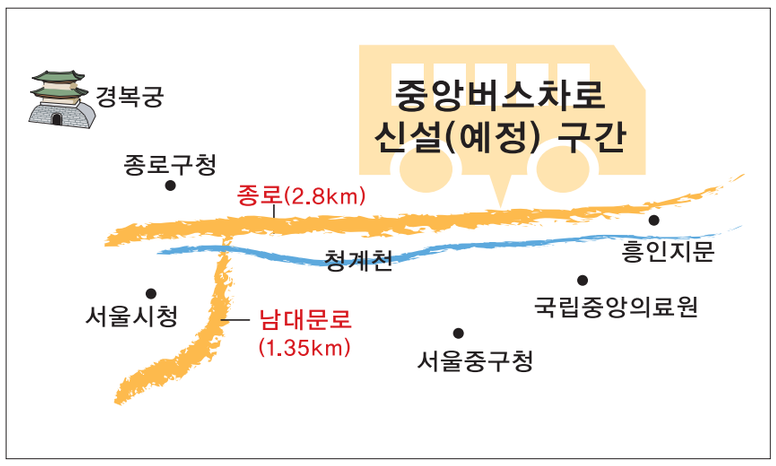
'중앙버스차로제' 난관 부딪힌 연등회

서울시, 종로BRT 추진
연등회보존위 '난색'

한국불교 최대 축제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종로 중앙버스차로제(BRT)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2.8㎞)과 종로1가~숭례문(1.35㎞) 구간에 BRT를 설치하고, 왕복 8차로 도로를 6차로로 변경해 관광버스 주차공간과 자전거길 등을 마련하는 도로공간재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공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구하는 등 BRT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개장하는 서울역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과 함께 도보문화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연등회보존위원회와의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로에 추진 중인 BRT 구간은 연등회 백미(白眉)인 연등행렬 구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연등회보존위는 BRT 설치에 대해 서울시에 난색을 표했다. 보존위는 "연등행렬이 도로 중심에서 양쪽으로 나뉘어 행사 진행이 어려운 데다가 시야 방해와 안전사고 등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사회서 사업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관계 부처에 제출키로 결의하기도 했다. 게다가 보존위는 연등회 행사장소 변경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종로와 남대문로에 추진 중인 '중앙버스차로제' 구간.

세종대로4가~흥인지문 구간
연등회 시야방해·사고 우려
행사장소 변경 고려 안 해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 난항

보존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연등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종로와 연등회가 갖는 역사·문화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장소를 변경하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종로구청과 몇몇 동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로구청과 창신동 등서 종로 BRT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사업 반대보다는 좌·우회전 등 교통편의성과 관련된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등회보존위는 BRT 반대가 자칫 종교 이기주의로 대중에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서울시는 연등회보존위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초 연등행렬 장소를 남산~남대문으로 변경하는 안은 보존위 측 반대에 따라 철회됐고, 최근에는 행사 시 버스정류장 분리에 관한 내용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류장 분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행사 주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원활한 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큰 그림서 볼 때 종로구간만 버스중앙차로가 끊겨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상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 원활화 등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BRT를 설치하고자 한다"면서 "연등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류장 분리의 경우 연등회 외에 다른 행사들도 해당되는 만큼 주체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연등회보존위 간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로 인해 불교계 내에서는 무형문화재인 연등회가 상황에 따라 장소를 옮겨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美 선불교 지도자 '노만 피셔' 3월 방한

8일부터 13일간 자비법문·행법 등 대중강연



선(禪)의 영역을 비즈니스, 법률 등 현대 각 분야로 확장시켜 온 미국의 대표적인 선 지도자 '노만 피셔'(Norman Fischer·사진)가 방한한다.

서울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과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권선아 스트리트젠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다르마 프렌즈'는 2월 28일 서울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노만 피셔 방한 계획을 공개했다.

노만 피셔는 3월 8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내가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입니다' 강연을 시작으로 21일까지 13일간 대중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10~11일 서울 상도선원에서 '텅 빈 충만, 염화미소의 자비심'을 주제로 선불교의 자비법문과 행법을 설명하며, 13일 부산 흥법사에서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연결돼 있습니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 14일 부산 관음사에서 '행복한 삶, 평화로운 죽음'을 주제로 호스피스 이야기를 풀어가며, 16~19일 해남 미황사에서 '우레와 같은 침묵의 소리'를 주제로 묵조선 수행을 설명할 예정이다. 방한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깨어있는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오피니언 리더와의 즉문즉답도 진행된다.

이번에 방한하는 노만 피셔는 서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규모가 큰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 지도법사로 현재 선불교 가르침을 서양문화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는 '에브리데이 젠(Everyday Zen)' 재단 상임법사이자 정신적 구심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유연함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의 가르침은 서양의 삶에 선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노만 피셔는 특히 '컴퍼니 타임'이란 워크숍을 통해 불교의 자비실천을 변호사와 갈등조정자 등에게 자비실천을 가르쳐 왔으며 구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자문하기도 했다. 종교간 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1996년 게세마니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열린 종교간 대화에 달라이라마와 함께 참여했고, 2014년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연설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원 스님 49재 "스님 뜻, 잇겠습니다"

범불교시국회의, 2월 25일 광화문 광장서 49재

지난 1월 7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소신공양한 정원 스님이 떠나간 지 49일째. 정원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유지를 받들 것을 약속하는 만장이 광화문 광장에 휘날렸다.

범불교시국회의는 2월 25일 광화문 광장서 '민주·정의·평화의 수행자 정원 스님 49재'를 봉행했다. 헌향, 헌화에 이어 추모집 헌정식, 추모사, 발원문 합송, 봉송의식 등 순으로 진행된 이날 자리엔 500여 시민들이 운집해 정원 스님의 유지를 받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재마 스님이 대표 낭독한 추모 발원문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저항으로 광장에 수십만의 촛불이 타오르던 날, 광장의 한편에서 자신의 삶을 부처님 전에 바침으로써 국민들 뜻이 이뤄지길 염원하던 이가 있었다. 정원 스님은 이 광장서 민중들과 고락을 함께하고 가는 날까지 일체민중의 행복을 발원하며 몸을 사른 운수납자였다"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님의 소신공양은 원칙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외면한 정부에 내리는 조용하지만 엄중한 경책이었다"며 "스님의 숭고한 뜻이 민중의 염원이 뜨겁게 타오르는 광장서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500여 시민 운집해 추모
발원문 합송·봉송의식 등
"역사 속 한줄기 불꽃 되길"

아울러 유족대표로 재단에 오른 정원 스님의 속가동생 서상원 씨는 정원 스님의 소신공양이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한줄기 불꽃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씨는 "정원 스님은 큰스님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다. 그저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구보리하화중생을 실천한 것 뿐"이라며 "이곳 광화문의 역사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만 한다. 정원 스님의 소신공양이 역사 속 한줄기 불꽃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원 스님의 영정을 들고 봉송의식에 임하고 있는 범불교시국회의 스님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광화문 광장 한편에선 빈곤과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세모녀 3주기 추모재도 봉행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등 5개 단체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시민 추모행동을 개최했다.

사회노동위 등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 2017년에도 생계고로 죽어간 사람이 여럿 있다며 "정부는 현재 복지제도가 또다른 송파 세모녀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단 것을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진입장벽을 무너뜨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고, '복지는 국가책임'이란 것을 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평창올림픽, 템플스테이로 '더 풍성히'

외국인 체험 5만 명 목표…
운영 사찰 확대, 편의 도모

한국불교 문화체험의 대표 템플스테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인의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템플스테이 체험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템플스테이 사찰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계절별 관광코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8일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2017년 전국 123개 사찰서 운영되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프로그램도 추진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 전후에 걸쳐 강원지역 문화관광과 연계된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평창 월정사, 양양 낙산사, 속초 신흥사, 인제 백담사 등 강원내 주요사찰(13곳 예정) 및 수도권(9곳 예정)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을 중심으로 통역 전담 자원봉사자 약 150명을 배치한다.

먼저 외국인 체험 5만 명을 목표로 마이스(MICE) 산업 결합 상품을 개발한다. 또한 현재 외국인 전문 24개소, 특화 프로그램 '아생여당(위로, 건강, 비움, 꿈 4가지 콘셉트의 템플스테이 브랜드)' 16개소, 사찰음식 특화 16개소로 운영되는 전문화 사찰을 확대 지정 및 운영한다.

아울러 템플스테이 사찰의 '맛과 멋의 여행' 프로그램은 4계절마다 연계관광코스를 선보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특히 기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1박 이상으로 진행되던 것을 관광객 편의를 도모, 당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꾀한다.

황명선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2017년에도 바쁜 현대인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를 지속 육성할 것"이라며 "템플스테이가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행사 발전에 기여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www.templestay.com

박아름 기자

